

## 유카탄 카스타 전쟁의 사회적 의의\*

정혜주\*\*

단독/부산외국어대학교

Chung, Hae-Joo(2011) "Rationale for the Yucatan's Caste War"

### ABSTRACT

The Caste War of Yucatán was fought between the Mayan aborigines and the Ladino ruling class from 1847 to 1901. This war was characterized by two phases, a violent period lasting from 1847 to 1854, and a period of Mayan independence from 1855 to 1901 during which the Mayan Indian Republic, referred to as the "Speaking Cross" ruled Yucatán.

The conditions for the Mayan revolt developed out of the political chaos that existed in Mexico after independence. The failed promises of the Spanish monarchy's 1812 constitution to relieve the Mayan people of serfdom and personal tribute promoted the conditions for revolt. The war from 1846-1848 between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ovided the Mayan people with arms, and combined with the conflict between federalists and centralists to further encourage the Mayan people to rebel against the Yucatán government.

Once provided with the opportunity to fight, 300 years of pent up anger was released by the Mayan people. Even though their ultimate aim was to build their own free republic, the resulting war became violent, aggressive and bloody.

**Key Words:** political chaos, ladino, Mayan aborigines, obvention and contribution, speaking cross / 정치적 혼란, 라디노, 마야원주민, 종교적 세금과 부역, 말하는 십자가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08-362-A00003).

\*\* Hae-Joo Chung is a HK research professor of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at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mail: pztintin@pufs.as.kr).

## 들어가는 글

2010년은 멕시코가 스페인의 식민지배에 대해 독립선언을 시작한 지 200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마야문명과 마야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는 국제마야학회도 독립과 전쟁을 주제로 잡았다. 학회는 표지 그림으로 “카스타 전쟁”(La Guerra de Castas)을 선택하였다.

유카탄의 카스타 전쟁은 1847년에 발발하여 1901년까지 약 54년간 계속되었는데, 이는 약 7년간의 폭력적인 전쟁기간(1847-1854)과 마야 사람들이 반도의 북동쪽 밀림으로 물러나서 소규모의 전쟁을 계속하며 유카탄 또는 멕시코 정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았던 47년의 기간(1854-1901)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카스타는 계급을 의미한다. 당시 유카탄에는 라디노(ladino)라고 부르는 스페인의 후예인 크리오요(Criollo)와 스페인과 마야원주민의 혼혈인 메스티소(Mestizo), 그리고 마야(Maya)원주민이 있었다. 이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뒤엉켜 싸운 이 전쟁은 전쟁기간이 상당히 길고, 멕시코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양상을 보였으며, 한 집단의 반란이라기보다 각기 다른 사회계층의 전면적인 대립이었다. 전쟁의 결과로 얻어진 것은 비록 50년 정도의 짧은 기간과 제한된 지역이었지만 아메리카 대륙에 유럽 사람들이 들어온 이후에 세워진, 유일하게 “원주민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정치-사회 조직이었다.

이 사건의 무대가 되었던 유카탄 주의 바야돌리드(Valladolid), 티시민(Tizimin), 테피츠(Tepich), 티호수코(Tihosuco), 키타나로 주의 찬 산타 크루스(Chan Santa Cruz: 현재의 카리요 푸에르토)에 이르는 지역에는 아직도 싸움의 흔적이 생생히 남아있다. 티호수코와 테피츠의 주민들은 반란을 이끌었던 원주민 지도자들의 동상을 세우고, 전쟁 박물관을 만들고, 사건의 과정을 재현하는 드라마를 공연하는 등 7년의 전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으며, 카리요 푸에르토(Canillo Puerto)에는 찬 산타 크루스<sup>1)</sup>를 모시는 예배당이 그대로 있는데, 주위의 마을에서 온 대표자들이 돌아가며 십자가를 지키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하나같이 전쟁을 이끈 지도자들이 불의와 가난의 비참한 상황에 빠진 마야사람들을 위해 싸웠다고 말한다.

1) Chan은 마야어로 ‘작은’ 이라는 뜻이다. Santa Cruz는 스페인어로 ‘성스러운 십자가’라는 뜻.

유카탄은 멕시코 동부, 미국 플로리다의 남쪽, 과테말라와 벨리제에 접경하고 있는 반도이다. 유카탄 주, 키타나로 주, 캄페체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세 주가 바로 카스타 전쟁의 무대이다. 이 지역은 원래 고대 마야문명이 번성했던 곳으로 반도의 북부, 현재의 유카탄 주는 후기 마야 문명의 중심지였다. 1519년 스페인 침략자들이 올 당시에도 이곳에는 수많은 마야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침략 당시에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아스테카(Azteca) 문명과 달리 마야 문명은 쇠퇴기에 있었다. 남쪽의 치아파스에서 과테말라 북부로 이어지는 뾰뾰한 열대우림 속의 마야 사람들을 정복하는 데는 거의 200년이 걸렸는데, 이는 접근하기 어려운 자연환경 탓이 컸을 것이다. 1761년에 마지막 아하우(Ahau)<sup>2)</sup>로 추앙된 하신토 카넥(Jacinto Canek)의 사건을 제외하고, 스페인 사람들은 메리다(Merida)<sup>3)</sup>와 이사말(Izamal)<sup>4)</sup> 사이의 유카탄 북서부를 중심으로 비교적 손쉽게 이 지역에 지배체제를 세웠다. 그리고 300년 후, 멕시코 중앙고원을 중심으로 북부에서는 약 10여 년간의 치열한 독립전쟁 끝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얻었으며, 유카탄은 멕시코가 독립을 쟁취함에 따라 덩으로 독립을 이루었다.

이러한 유카탄에서 54년간 지속된, 무기에 의존한 거대한 폭동이 바로 카스타 전쟁이다. 계급을 의미하는 카스타(Casta)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피지배와 지배, 원주민과 백인의 사회 계급적이고 인종대립적인 전쟁이었다. 따라서 이 전쟁을 “마야의 사회전쟁”(Guerra Social Maya)이라고도 부른다. 즉 사회혁명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사회 계급적이고 인종 대립적인 양상은 스페인 식민시절에 나타난 것이지만, 전쟁은 이 시기가 아니라 독립이 된 후 26년이 지나서야 일어났다.

이번 글에서는 카스타 전쟁의 진행과정과 그 결과를 살펴보고 독립이 된 후에 식민지 시절에 형성된 계급에 대한 사회혁명적인 성격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와 그 사회적 의의를 알아보려고 한다.

2) Ahau는 마야어로 ‘왕’을 말한다.

3) 유카탄 주의 수도. 유카탄 반도의 서북부에 위치한다.

4) 유카탄 주의 도시로 식민시절에 추기경이 거주한 수도원이 있었던 유카탄 카톨릭의 중심지였다.

## 전쟁의 과정<sup>5)</sup>

1821년 9월 15일, 유카탄은 스페인에 대하여 독립을 선언함과 동시에 새로운 나라 멕시코에 포함되는 것을 선언했다. 그러나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던 유카탄의 토착부호들은 스스로의 헌법을 따로 만들고 멕시코 연방의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 정치적으로 후자를 연방주의자(Federalista), 전자를 중앙집권주의자(Centralista)라고 불렀다. 바르바차노(Miguel Barbachano), 세티나(José Dolores Cetina)와 같은 연방주의자들은 토착부호로서 마야원주민들과의 관계가 밀접했던 반면 멘테스(Santiago Mendez)와 트루헤케(Antonio Trujeque) 등의 중앙집권주의자들은 상대적으로 원주민들과의 관계가 적었다.

멕시코 중앙정부는 내부적으로는 이투르비데의 실각 이후 30년 동안 50개의 정부가 들어설 정도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고, 남쪽으로는 치아파스 지역에서 과테말라와, 북으로는 텍사스 지역에서 미국과 영토다툼을 하고 있었다. 이후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카스타 전쟁에도 관여하였다.

다른 한편 마야원주민들은 독립과 함께 백인 지배계급과 동등하게 시민으로 인정을 받고 투표권을 얻었다<sup>6)</sup>. 그리고 교회에 대한 세금<sup>7)</sup>을 면제 받았다. 그러나 헌법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때여서 정치적 이해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

각각의 경제적 이해가 달랐던 중앙집권주의자와 연방주의자들이 충돌하자 유카탄 반도를 영토에 포함시키려는 멕시코 정부가 간섭하며 전쟁이 시작되었다. 캄페체에서는 중앙집권주의자인 멘테스가 주지사가 되었고, 메리다에는 연방주의자인 바르바차노 정부가 들어섰다. 멕시코 정부는 캄페체와 협력하여 메리다 정부를 공격하였다. 전쟁은 유카탄 반도의 중심부분인 바야돌리드에서 시작하여 남쪽과 서북쪽의 마을과 도시들로 확산되었다.

양측은 군인을 모아서 싸움을 하였으므로 마야원주민, 메스티소, 그리고 라디노<sup>8)</sup>들이 뒤섞였다. 지휘체계 또한 일정하지 않았는데, 메리다는 상황에

5) Reed, Nelson(1971), *La Guerra de Castas de Yucatán*, México: ERA; Dumond, Don E.(2005), *El machete y la Cruz*, México: UNAM; Rugeley, Terry(1996), *Yucatan's Maya Peasantry and the Origins of Caste War*,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에서 요약하였다.

6) 1821년의 이구알라 협정에서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유카탄에서는 1841년 헌법에서 마야원주민을 시민으로 인정하였다.

7) obvención이라 부르며, 1825년의 헌법에서 교회에 대한 물질적, 신체적 헌신을 부정하였다.

8) 크리오요(Criollo)라고 불리는 백인계의 사람을 유카탄에서 부르는 말로, 당시의 사회



## 전쟁의 발발

세티나는 연방주의자였다. 티시민<sup>10)</sup>으로 몰래 들어간 그는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마야원주민들에게 종교세를 없애고, 개개인의 땅의 소유를 약속하며 약 300명가량의 마야원주민과 메스티소에게 군대에 참여하기를 종용하였다. 그는 중앙집권주의자인 트루헤케가 바야돌리드<sup>11)</sup>를 공격하자 주지사 미겔 바르바차노가 쿠바(Cuba)로 망명한 유카탄에서 연방주의자의 세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예정이었다. 치치밀라(Chichimila)마을의 바탐 마누엘 안토니오 아이(Manuel Antonio Ay)는 군대에 자원했다. 그는 바르바차노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하신토 파트(Jacinto Pat)의 농장 콤페치(Cumpich)에서 세실리오 치(Cecilio Chi), 보니파시오 노벨로(Bonifacio Novelo)와 모임을 가졌다. 파트는 티호수코, 치는 테피츠의 바탐이었다. 파트는 마야사람들이 살아갈 조건을 지속하길 원했고, 치와 노벨로는 백인들을 모두 없애고 싶어 하였다. 목적이 무엇이던 간에 그들은 백인들과 싸움을 하려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다. 그들은 세티나에게 협력하기로 하고, 노벨로에게 돈을 주고 벨리즈로 보내 영국군의 무기를 사오도록 하였다.

아이가 마을로 돌아간 뒤 얼마 후인 1847년 7월, 치는 테피츠에서 아이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치 자신이 티호수코를 치려고 하는데, 몇 개의 마을이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지 자신과 합류하기 2-3일 전에 알려 달라고 스페인어로 쓰여 있었다. 편지를 받은 아이가 치치밀라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편지를 떨어뜨렸고, 한 사람이 그것을 주워 읽고는 편지의 내용을 수상하게 생각하여 로사도(Rosado) 대령에게 보고한다. 곧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아이와 그 주위의 사람들을 붙잡았고, 아이, 치, 파트, 노벨로가 반란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그들은 아이를 바야돌리드로 데려갔다. 그리고 다음날인 7월 26일에 처형했다.

세티나 대령은 아이의 체포 소식을 들은 후, 3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바야돌리드 도시 밖의 남쪽지방을 향해 전진하였다. 그러나 전쟁을 시작하지

10) 유카탄 주 북쪽의 항구 도시.

11) 유카탄 주의 중앙에 위치한 제 2의 도시. 1847년 당시에 유카탄반도는 정치적으로 네 개의 지역으로 나뉘었다. 메리다와 북서쪽, 캄페체와 남쪽, 바야돌리드와 그 주변, 식민화된 이 셋의 경계의 동쪽 지역. 이 네 곳은 각각이 작은 독립국가였다. 각 지역마다 라디노의 이해가 달랐고, 바야돌리드는 라디노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으로(라디노:원주민=7:1) 가장 보수주의적이었다(Reed 1971).

않고 사태를 관망하였다. 그 사이에 트루헤케가 치와 파트를 잡으러 나섰다. 그는 군인들을 몰고 테피츠에 있는 치의 농장으로 갔다. 그러나 치는 이미 도망가고 없었다. 트루헤케는 농장을 약탈하고 불태웠으며, 한 백인 병사는 12살의 원주민 소녀를 강간하기도 했다. 그들은 다음 날 다른 원주민 마을을 습격하여 5명의 마야사람들을 잡아 갔다.

1847년 7월 30일, 세실리오 치는 테피츠를 습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는 그곳에 있었던 여자와 아이를 포함한 20-30명의 라디노 가족을 몰살하였다. 이렇게 유카탄의 계급전쟁은 바탐들을 중심으로 한 마야원주민과 중앙집권 주의자 라디노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 마야사람들의 짧은 승리

테피츠의 습격에서 살아남은 라디노는 티호수코에 가서 이 소식을 전했다. 티호수코의 라디노들은 자신들의 집을 버리고 북쪽 끝의 작은 광장에 모여 방호벽을 만들고 도움을 청하는 사절을 보냈다. 그리고 감옥에 있던 마야사람들을 끌어내어 벽에 줄지어 세우고 총살하였다. 물론 그들은 앞의 학살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다음 날, 로사도가 지휘하는 군대가 도착하자 다시 테피츠를 공격하였다. 그렇지만 돌담<sup>12)</sup> 뒤에서 한 줄로 서서 공격하는 마야사람들에게 패퇴하였다. 다시 공격을 감행하여 이번에는 돌담을 넘어서 전진할 수 있었다. 도망가는 마야사람들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교회의 기물을 마구 부수고, 마을의 우물에 돌을 집어 던져 메우고 집들을 불태웠다. 여기서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한 수많은 원주민들이 죽었다.

1847년 8월 6일, 캄페체(Campeche)에서는 주지사 멘데스가 16-60세 사이의 백인과 반백인(semi blanco)은 군대에 지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메리다에서 보복을 하기 시작했다. 메리다의 북서쪽에 사는 마야 사람들의 밀파(milpa)<sup>13)</sup>와 집을 태우고 남자들은 잡아서 수용소로 끌고 갔다. 매일 비명소리와 산 사람을 태우는 냄새가 났다.

치와 파트, 그리고 다른 원주민 지도자들은 쿠룸피치(Culumpich)에 모여 백인이 사라질 때까지 싸우기로 하였다. 마야사람들은 똑 떨어진 농장을 공격하

12) 마야사람들 특유의 1미터 미만의 돌담으로 평소에는 구역을 구분 짓는 용도이나, 싸움에서는 효과적인 방어벽으로 사용되었다.

13) 마야사람들의 옥수수 경작지.

여 돈과 보석을 강탈해서 모았다. 이 돈을 가지고 보나파시오 노벨로는 벨리즈로 무기와 탄약을 사기 위해 갔다.

1848년 1월, 마야사람들은 이츠몰 마을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로사도 대령의 휘하에도 마야 용병들이 있었다. 그들은 같은 마을 사람들이었다. 적과 아군이 분명치 않은 복잡한 상황이었다. 마야 원주민측이 공격할 때는 “미겔 바르바차노 주지사 만세”를 외쳤다. 로사도 휘하의 마야사람들은 라디노들보다 급여가 적고 업신여김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들 중의 일부는 다른 마을로 이동하는 중에 이탈하여 집으로 향하였다. 그로인해 로사도의 진영은 거의 반으로 줄었고, 더 약해졌다.

이츠몰을 무너뜨리자 마야사람들은 더 이상 한 지점에 몰리지 않고 지역적으로 모였다. 하신토 파트가 이끄는 남쪽 병력은 페토를 점령하고 서쪽으로 진격하였고, 세실리오 치는 바야돌리드를 포위·공격하는 군을 지휘하였다. 치는 대농장과 란초(rancho)<sup>14)</sup>를 공격하여 가축, 꿀, 면화, 커피, 돈 모두를 약탈하고 불을 질렀다. 그는 적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군은 마을에 주둔할 수가 없었고 매번 군대를 보내서 싸워야 했다.

1848년 1월 19일, 치를 선두로 마야사람들이 메리다 시로 쳐들어갔다. 12,000-15,000명의 마야인들이 도시를 마구 약탈하였다. 여자와 아이들은 근처의 성당으로 도망갔으며, 군인들은 마야사람들을 저지하기 위해 대포를 마구 쏘았다.

### 짧은 승리의 결과

1948년 2월에 북쪽의 지도자들과<sup>15)</sup> 파트가 어찌면 마야사람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협상조건을 의논하기 위해 티호수코에 모였다. 그 후에 치는 바야돌리드로 돌아가서 조건을 제시했다. 세금을 줄일 것, 가져간 무기를 돌려줄 것, 그리고 그들의 수장격인 트루헤케를 처벌할 것. 바르바차노는 모든 조건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약속했다. 이것을 미겔 볼리오(Miguel Bolio) 대령과 마누엘 시에라(Manuel Sierra) 신부가 살해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협상을 하여

14) 가장 작은 크기의 농장.

15) 유카탄 반도의 북쪽에 위치한 마을에서 온 지도자들로 세실리오 치, 보나파시오 노벨로와 플로렌티노 찬(Florentino Chan)을 말한다.

2월 12일에 문서로 만들었다. 그러나 찬세노테(Chancenote)에서 라디노들이 여자와 아이들을 학살하고 성당의 기물을 불태우고 파괴하면서 이 협상은 깨어졌다.

이후 4월 18일, 바르바차노와 파트는 추카캅(Tzucacab)에서 협정을 맺었다. 벨라(Vela) 신부와 펠리페 로사도 대령이 라디노 측을 대표했고, 하신토의 형제인 에스테반 파트(Esteban Pat), 호세 마리아 바레라(José María Barrera), 후안 후스토 얀(Juan Justo Yam)이 증인으로 함께 하였다. 그들이 서명한 협정 내용은 치와 시에라신부가 했던 내용과 유사했으나 파트가 원주민의 대표가 되는 조항이 덧붙여 있었다.

1. 원주민들의 개인적 헌신을 없앨 것.
2. 세례와 결혼에 대한 권리를 줄일 것.
3. 마야사람들은 그들의 밭을 빌리거나 차압한다는 협박받지 않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을 것.
4. 모든 고용인들은 그들의 밭을 탕감할 것.
5. 바르바차노가 평생 주지사가 될 것.
6. 하신토 파트가 원주민들의 수장이 될 것.
7. 마야사람들의 장충을 돌려줄 것(약 2,500정).
8. 아구아아르디엔테에 붙인 세금을 없앨 것.

(Reed 1971, 94, 필자번역)

치는 이 소식을 듣자 파트에게 겁장이에 배반자라고 편지를 보내고 부하들을 이끌고 하신토 파트를 습격해서 붙잡아 협정서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찢었다. 이것이 협상의 마지막이었다.

### 마야사람들의 패퇴

추카캅 협정을 파기한 직후에 마야사람들은 다시 메리다로 진격해야 옳았다. 그러나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옥수수를 심을 때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수없이 갈라진 오솔길로 흩어져서 자신들의 집으로 갔다.

적이 약해진 것을 눈치 챈 멘데스는 1,200명을 모아서 바야돌리드로 향하는 길의 툰카스(Tunkas)에 집결했다. 그들은 마을과 들을 태우고 말과 총알과

비축물과 포로를 잡았다. 1848년 봄에 심은 곡식들은 7월 중순이나 되어야 추수한다. 만약 라디노들이 공격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밀파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마야 사람들은 하던 일을 중도에 두고 다시 툰카스로 모였다.

하신토 파트는 라디노들이 무나를 재점령하였을 때, 한 농장에서 움직이지 않고 칸차칸(Canchakan)의 진지를 태우고 배후로 테코(Tecoh)를 공격하였다. 세티나 대령은 스스로 앞서서 지휘하였다. 백병전은 밀리고 밀다가 7월 29일에 끝났다. 이 날 파트는 그의 부하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보고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티쿨(Ticul), 테카스(Tekax)를 지나며 백인들을 몰살했다. 세티나도 그의 부하들을 두 줄로 테카스로 보내었다. 마야인들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엄호하며, 방어벽도 두 줄로 만들어 방어했으나 마을은 쉽사리 점령당했다. 마을을 점령한 자들은 포로로 잡은 마야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리며 이층으로 몰아가서 거기서 팔과 다리를 잡아 총검을 받치고 있는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다. 군인의 다리를 걷어차며 우는 어린아이도 잡아서 총검 위로 밀었다.

한편, 협정이 깨어지자 바르바차노는 정치적 입장을 바꾸어 멕시코의 대통령에게 다시 한 주로 편입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자 7월 중순에 메리다를 도우려 5척의 멕시코 배가 28,000페소, 1,000정의 장총, 10만 개의 총알과 30만kg의 화약을 가지고 베라크루스 항을 출발했다. 1848년 8월 17일, 바르바차노는 중앙정부로의 재결합을 선언했다.

멕시코에 도착한 예르고 장군은 메리다-바야돌리드, 메리다-페토에 이르는 길에 1,2,3,4,6 연대를 모두 출동시켰다. 모두 3,500명 이었다. 총알이 얼마 남지 않았던 마야사람들은 이 전문적인 군인들에 대항하기 위해 나무사이에 숨어서 정확히 조준해야했다. 그리고 그들이 다가서면 마체테(machete)<sup>16</sup>로 방어했다. 그러나 이는 도망치기 위한 방어여서 힘이 없었다.

10월과 11월 사이에 마야의 패잔병을 향한 마지막 공격이 있었고, 1848년 12월 13일, 마침내 티호수코에 저항 없이 들어섰다. 제5연대는 바야돌리드를 점령했다. 그리고 바야돌리드로부터 유카탄 반도의 동남쪽 방향으로 부챗살처럼 퍼져가며 마야 패잔병들을 소탕했다. 바칼라르(Bacalar)<sup>17</sup> 이외에는 모두 재정복되었는데, 바칼라르는 당시의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백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땅이었다. 살아남은 마야인들은 그쪽으로 몰려갔다.

16) 마야사람들이 사용하는 긴 칼로, 원래는 풀과 나무를 베는 작업용이다.

17) 유카탄 반도 동남부에 있는 도시로 키타나로 주의 셀바(아열대의 숲) 속에 있다.

## 바탕들의 죽음

파트, 노벨로, 치는 각각 다른 곳의 셀바의 한가운데로 피해서 세노테 주위로 몇몇의 임시 초가를 세우고 살았다. 이들 중에 치가 가장 먼저 죽었는데, 가장 용맹스러운 이 바탕을 죽인 자는 그의 아내와 사랑에 빠진 아타나시오 플로레스라는 그의 부하였다. 치는 그가 태어난 테피츠의 묘지에 묻혔다.

파트는 누구보다도 라디노들의 세계를 잘 알았다. 전쟁이 길어지면 백인들이 이길 것을 알고 재난을 피하려고 벨리즈의 총리와 협상을 하려고 하였다<sup>18)</sup>. 세실리오 치의 살해 이후, 그의 부관이었던 플로렌티노 찬(Florentino Chan)과 베난시오 펙(Venancio Pec)에게 이 풍문이 전해지자 그들은 하신토 파트가 다시 자신이 마야 원주민의 우두머리라고 선언할 것이라는 의심이 들었다. 1849년 9월 8일, 펙은 파트가 그 전날 베이스캠프인 타비에서 5,000페소를 가지고 무기를 사러 벨리세로 갔다는 것을 알았다. 펙은 타비의 몇몇 우두머리와 함께 남쪽으로 쫓아갔다. 그리고 바칼라르에서 80km 떨어진 곳에서 파트를 습격하여 살해하였다. 치와 파트가 죽자 노벨로의 이름도 기록에서 사라졌다. 그의 최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 “말하는 십자가”(Cruz Parlante)의 출현

1848년 후반에서 1849년 초반까지 라디노들은 마야원주민이 점령했던 곳을 되찾고 원주민을 동쪽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결국 마야사람들은 마지막 저항지인 캄포콜체(Kampocolche)에서 쫓겨났다. 파트의 부관이었던 호세 마리아 바레라는 그의 일당을 셀바(selva)<sup>19)</sup>의 한 세노테(cenote)<sup>20)</sup>로 이끌고 갔다. 그곳은 찬 산타 크루스(Chan Santa Cruz)라 불리는 곳이었다. 세노테로 들어가는 길은 낮고 어둡고 공간이 좁아 마야사람들이 신비스럽게 여길 조건이 되었다. 그들은 동굴입구에서 자라난 카오바 나무에 새겨진 약 7-10cm 길이의 십자가를 발견했다. 그곳에서 도망자들은 기도했다. 그들 중에는 복화술사인 마누엘 나우아트(Manuel Nahuat)가 있었다. 그는 배에서 울리는 소리로 마치 십자가가 말하는 듯 연출하며 캄포콜체 마을을 공격할 때라고 했다. 바레라는

18) 벨리즈는 스페인의 식민지였지만 독립 무렵에는 영국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 영국은 벨리즈를 통하여 마야반란군들에게 무기와 화약을 팔았다. 동시에 멕시코와는 벨리즈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었다.

19) 아열대의 숲으로 유카탄 반도의 대부분이 셀바로 덮여있다.

20) ‘샘’이라는 뜻의 마야어. 유카탄 북쪽에는 강이 없고, 표면에 물이 있는 곳은 세노테이다.

이에 힘입어 캄포콜체로 진격했다.

3월 23일, 정부군이 이 성소를 습격했다. 마누엘 나우아트는 라디노 한명을 죽이고 전사했고 바레라는 도망쳤다. 아무도 없던 그곳에 천명이상의 주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군인들은 놀랐다.

도망친 마야 사람들은 어둠을 틈타 ‘말하는 십자가’를 도로 찾아왔지만, 나우아트가 살해된 후 십자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바레라는 복화술을 대체할 다른 것을 생각해내었다. 그는 풀잎으로 지붕을 덮은 건물을 세우고 안쪽에 십자가들을 두었다. 그곳에는 몇 명의 주수 외에는 드나들지 못하게 하였다. 그곳은 너무 성스럽기 때문에 세속인이 볼 수 없는 곳이고, 또한 목소리의 비밀을 지켜야 했다. 십자가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제단 밑에 구멍을 파고 말하는 사람이 숨었다. 나무뚜껑이 소리를 크게 하고 울리게 하였다. 그의 성스러운 목소리는 싸움에 져서 흩어지고,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양식을 주며 희망을 주었다. 그들은 대중들이 회당의 앞쪽에서 예배를 보도록 했다.

찬 산타 크루스에는 초가가 300-400채 정도 되었고, 마을 중앙의 8-9채는 지도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또한 아주 잘 만들어진 세 개의 커다란 사병소가 있었고, 교회와 우물과 물통이 있었다. 죽은 자들을 위한 장소에는 팔마(Palm a)<sup>21)</sup>로 장식된 아치가 있었다. 1852년 12월 31일, 호세 마리아 바레라가 사망했다. 그러나 그의 권위는 십자가를 후원하는 그의 추종자들에게 이어졌다. 주위 마을의 축제의 후원 성자들에게까지 이어졌다. 그들은 흔히 타티츠(Tatich), 즉 신부라 불렸는데, 라디노 사제 대신에 그들은 미사의 성찬, 세례, 결혼을 주재하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은 추기경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타티츠의 위치는 세습되었는데, 그들은 십자가에 근거하여 신의 뜻을 땅에서 해독해 주었다. 그들의 권위는 교황에 견줄만했다. 찬 산타 크루스에는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이 군대와 같은 조직을 이루고 살았다. 이들은 “십자가의 사람들”, 즉 “쿠르스옴”(Cruzob)이라 불렸다.

약 43년 후, 1895년 1월 멕시코 중앙정부와 메리다 정부는 쿠르스옴과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였다. 연락을 위한 전화선 및 도로를 개설하고 1900년 10월 할리스코 주 출신의 브라보 장군이 이끄는 정부군은 반도의 남동쪽을 향해 갔다. 1901년 1월, 그들은 찬 산타 크루스에서 23km 떨어진 노흐포

21) 열대의 잎이 큰 나무의 한 종류.

(Nohpop)에 진지를 세우고 감시하였다. 그러다 4월 중순, 한 마부가 잃어버린 노새를 찾아 헤매다가 텅 빈 커다란 건물들을 발견하면서 정부군은 비로소 찬 산타 크루스가 버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54년 동안 지속되던 전쟁이 비로소 끝났으나 1937년까지도 아직 이 지역은 불안한 상태였다.

반란이 가져온 재난은 1846-1850년 사이에 인구가 감소한 것을 보면 생생하게 느껴진다. 유카탄의 인구는 거의 반으로 줄었다. 바야돌리드와 테카스에 이르는 지역은 거의 65%의 주민이 사라졌고, 메리다는 약 25%가 줄었다. 계급전쟁에 참가한 원주민 수는 85,091명이며 대장급은 103명이다. 이 중에는 가난한 백인들과 메스티소도 상당수였다. 유카탄 반도 동쪽의 마야 원주민 참가자는 11,000명이었다.

## 전쟁의 분석: 원인과 결과

마야사람들이 반란을 계획하고 있다는 “만들어진 오해”에서 비롯된 전쟁은 매우 폭력적으로 2년간 지속되다가 종교적 성격의 “찬 산타 크루스”를 형성하는 것으로 끝났다. 다음은 전쟁이 시작되는 배경과, 어떻게 인종적인 성격의 전쟁으로 변모되었는지, 300여 년 동안 피지배 계급으로 지내던 마야원주민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백인들과 대등하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 왜 결국은 종교적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조사하여 카스타 전쟁의 성격적 특징을 드러내고자 시도하였다.

### 전쟁의 시작: 중앙집권과 연방주의 갈등

1847년, 전쟁을 시작한 것은 라디노인 세티나 대령이었다. 그는 그의 상관인 미겔 바르바차노를 위하여 트루헤케를 밀어내려고 하였다. 세티나, 바르바차노와 트루헤케가 반목한 이유는 독립직후의 유카탄의 정치적 상황 때문이었다. 독립과 함께 1823년 당시의 멕시코 황제(자칭) 이투르비데는 스페인에게 선전 포고를 하고 스페인과의 무역을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유카탄에는 두 개의 정치 세력이 형성되었다.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였는데, 자유주의자들은 쿠바를 비롯한 스페인 식민지역들 및 벨리즈 등과 무역을 하기 원했고, 보수주의자들은 멕시코 정부와 무역을 하기를 원했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는 유카탄반

도가 멕시코 정부로부터 정치-외교적인 독립을 원하는 연방주의자로, 보수주의자는 멕시코 정부에 속하기를 원하는 중앙집권주의자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혼란한 상황<sup>22)</sup>이었고(Pazos 2008, 77), 미국과 전쟁<sup>23)</sup>을 하고 있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정치세력들은 수시로 입장을 바꾸었다. 한때는 트루헤케도 연방주의자들과 의견을 함께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반목하고 있다가도 상황에 따라 제휴를 하였다.

그런데 소수의 지배층에 불과한 라디노들은 그들끼리 직접적으로 싸움을 할 수 없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면서 라디노들은 다수의 원주민들이 필요하였다. 세티나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야원주민과 메스티소를 합류시켰다. 트루헤케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내건 조건은 종교세 및 개인부역의 감면이었다. 유카탄 반도에서는 1812-1814년 사이에 스페인 왕정이 모든 세금을 없앤 적이 있었다(Bricker 1993, 180).<sup>24)</sup>그러나 독립이 되자 다시 원주민 농부들은 매년 교회세(Obvención)<sup>25)</sup>를 내고, 세례, 결혼, 심방 등 온갖 교회의 서비스에 요금을 내었다. 그들은 시민세도 내었다. 게다가, 예를 들어 메뚜기를 죽이기 위해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 같은 부역도 완수해야 했다. 나중에는 구역도 있었고, 그들 자신의 옥수수 밭을 갈기 위해 임대료를 내기도 했다. 또한 그들 자신의 마을소유를 공식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보조금을 내어야 했다. 즉 교회와 국가는 가난한 농부가 태어나면 그의 발걸음마다 세금을 거두었다(Rugeley 1996, 26). 따라서 1814년 이후 마야 원주민들은 세금의 감면 또는 철회를 바랐고, 라디노들은 이를 이용하여 원주민들을 전쟁에 끌어들이 수가 있었다.

한편, 식민지 시절 동안에는 마야 사람들은 전혀 무장을 하지 않았었다. 대부분의 마야사람들은 농장의 일꾼 또는 수공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의 대통령 산타 아나는 미국과의 전쟁에서 져서 텍사스를 잃어버리자 유카탄의 원주민들을 무장시키고 유카탄이 아닌 주를 위해서도 군대에 복무해

22) 1821년에서 1850년 사이에 멕시코에는 50개의 정부가 들어섰다.

23) 1833년 대통령이 된 산타 아나는 미국과 전쟁을 하여 1836년에 현재의 텍사스 주를 잃었다.

24) 1812년의 헌법에는 “모든 공물(tributo)과 종교세(obvención), 개인적 부역(servicio personal obligatorio)을 폐지한다. 모두가 시민이며 무니시팔(municipal)을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25) 교회에 남편과 아내가 따로 따로 내는 것으로 마야원주민들에게 가장 부담이 가는 세금이었다.

야하는 의무를 지웠다(Dumond 2005, 105). 마야원주민들은 스페인에게 점령된 1521년 이후에 처음으로 마체테 이외의 무기를 손에 쥐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원주민이 지고 있는 세금에 대한 감면 약속을 하면 연방주의자도 중앙집권주의자도 군대의 경험이 있는 원주민들을 싸움에 불러들일 수 있었다. 여기에 돈을 벌기 위한 가난한 백인과 메스티소들도 끼어 있었다. 따라서 이미 앞장에서 본 것처럼 어느 전투에서든지 서로 아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편에서 싸우게 될 여지가 있었다. 그와 반대로, 그들을 고용한 자의 정치적 입장이 바뀌면 같은 편이 될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세티나와 트루헤케와 같이 입장이 각각 다른 두 정치적 세력을 지지하는 자들의 싸움이었고 인종이나 계급간의 갈등은 아니었다.

### 정치적 갈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바뀌게 되는 경과:

#### 바야돌리드 사건

그렇다면, 정치적 갈등이 왜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이 되었을까? 세티노가 부르자 각 마을의 원주민 지도자인 바탑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전쟁에 참여하기로 하였는데, 이들의 모임을 반란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만든 것은 트루헤케 측의 로사도 대령이었다. 아이는 술을 마시다가 실수로 치가 보낸 편지가로사도 손에 들어가게 하였다. 편지의 내용을 확인한 로사도는 아이를 붙잡아 다음날 처형한다. 치는 아이에게 스페인어로 편지를 썼다고 한다(Dumond 2005, 139). 그러나 현재도 그렇지만, 마야사람들은 그들 사이에서는 마야어로 대화를 한다. 굳이 스페인어로 쓸 이유가 없다. 따라서 편지에 의문점이 많았고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 어려웠다(Bricker 1993, 187).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최대한 신속하게 아이를 처형한 것은 원주민 바탑들이 모인 것, 그 자체를 차단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이를 처형한 후 바로 치와 파트를 잡으러 나선 것으로도 추론할 수 있다. 트루헤케가 이렇게 반응한 것은 같은 해(1847년) 1월에 있었던 바야돌리드 사건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바야돌리드와 그 주위의 대부분의 땅은 연방주의자인 바르바차노 집안의 소유였다. 따라서 바야돌리드는 연방주의자들의 중심지였고, 중앙집권을 원하는 측에서는 무너뜨려야 할 곳이었다. 사건은 다음과 같다:

멕시코 정부의 명령을 받은 캄페체 군대는 1846년 트루헤케와 바스케스에게

거의 2000명을 이끌고 바야돌리드로 진격하라고 했다. 여기의 삼분의 이는 원주민이었는데, 이들은 1847년 1월 13일 시살 구역을 점령하고 바야돌리드를 포위했다. 유카탄의 여러 무니시팔(Municipal)<sup>26)</sup> 중에서 바야돌리드는 가장 보수주의적이었다. 식민지 시절의 계급 구별이 어느 곳보다 뚜렷하였다. 말할 필요도 없이, 원주민이 그 계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축제 때에는 원주민은 도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주위의 마을 원주민들은 공격하는 정부군과 아무 관계도 없었지만 포위에 참가하였다. 그들은 포위된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던지고 광장을 짓밟았다. 그들은 술을 강탈하여 마셨다. 술이 취한 그들은 마음이 내킬 때만 명령을 따랐다. 1월 15일, 전면적인 공격 명령이 내렸다. 그들은 마음대로 날뛰었다. 바야돌리드를 방위하던 베네가스(Vencgas) 대령이 공격이 시작될 때 하얀기를 올렸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는 포로가 되었다. 군중은 라디노의 자랑이었던 바야돌리드의 중심을 파괴하며 달렸다. 트루헤체와 바스케스는 전혀 통제할 수 없었다. 강간과 살해가 전 도시에 퍼졌다. 그들의 구호는 “서츠를 입은 사람을 죽여라”였다. 라디노 남자들을 마체테로 난도질을 하였고, 여자들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하고 손발을 묶어 창문에 매달고 마체테로 죽였다(Reed 1971; Laporte 1997; Rugeley 1997에서 요약 및 번역).

바야돌리드 사건은 카스타 전쟁이 일어난 해 1월에 벌어진 사건이다. 멕시코 중앙정부는 캄페체 주의 중앙집권주의자들과 함께 연방주의자의 아성인 유카탄 주의 바야돌리드를 무너뜨리려고 하였다. 바야돌리드의 백인들을 죽이라는 임무를 받은 원주민들은 마음껏 학살을 자행하였다. 이는 정치적 이해와는 전혀 관계없이 식민지 시절 동안 가장 보수적이었던 바야돌리드의 라디노들에게 반감을 갖고 있던 원주민의 반응이었다. 즉 백인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시작한 싸움이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연방주의자와 중앙집권주의자 모두가 원주민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까봐 염려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이는 멕시코 정부군의 공격을 받은 바르바차노가 인종전쟁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는 반응을 보인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학살의 소식은 주를 뒤흔들었다. 바르바차노는 메리다에서 캄페체의 주지사 바레트에게 편지를 썼다. 인종전쟁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면 백인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바레트는 인종전쟁이 나면 끔찍할 것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연방주의자(바르바차노를 지지하는 바야돌리드측)에게 있다고 하며 항복을 종용했다. 바르바차노는 항복하면서 바야돌리드의 약탈에는 책임이 없다는 정치적 입장을 밝혔다. 바르바차노가 떠나자 멕시코 정부가 왔고, 1847년 1월 22일 유카탄 정부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학살의 결과로 노벨로는 감옥에 갇혔다 (Reed 1971, 68, 필자 번역).

26) 유카탄의 행정구역 단위. 하나의 무니시팔은 큰 도시 하나와 여럿의 작은 도시로 구성된다.

바야돌리드 사건은 카스타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다. 트루헤케는 연방주의자인 세티나의 반란보다 바탐이 이끄는 원주민들이 라디노들에게 반란을 일으킬 것을 더욱 염려하여 미리 막으려고 과잉반응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 반응이 인종적 대결구도를 떠는 전쟁으로의 불씨를 당기게 된 셈이다. 더구나 아이가 처형된 원인을 제공한 세티나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고, 트루헤케 측에서는 세티나를 잡지 않음으로 해서 더욱 바탐이 이끄는 마야원주민 대 라디노의 싸움으로, 인종-사회적인 갈등으로 카스타전쟁의 방향이 잡혔다고 생각한다.

### 마야원주민의 조직적인 전쟁 참여: 바탐의 활약

마야원주민들은 전쟁에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마을의 바탐들이 모여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마을사람들이 그 결정을 따랐다. 치는 테피츠, 파트는 티호수코, 아이는 치치밀라 마을의 카시케, 즉 바탐이었다. 바탐들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기를 구입하고 식량을 조달하는 등 스스로 필요한 것을 준비했다(전쟁의 경과 참조). 그리고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6-7개월 만에 치(1848년 2월)와 파트(1848년 4월)는 라디노와 협상을 할 만큼 성과를 올렸다.

마을의 지도자를 일컫는 마야어인 바탐은 식민지시대에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독립이 되자 이 용어는 사라지고 카시케라고 불렸다. 그들은 이미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마야원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었고, 라디노의 우두머리들과 협력을 하기도 하였다. 한 예로 1840년의 투표에서 산티아고 멘데스는 만장일치로 유카탄의 주지사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부지사 후보인 미겔 바르바차노는 안토니오 트루헤케가 이끄는 중앙집권주의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투표를 하는 순간에 파트가 약 1,000여명의 원주민들을 이끌고 나타났고, 그들의 투표로 바르바차노는 당선될 수 있었다(Rugeley 1996, 29).

바탐들은 마을 사람들을 이끄는 영향력을 지님과 동시에 상당한 재력가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 있다. 1842년 9월, 몬테레이가 미국의 군대에 점령당하여 멕시코의 중앙세력이 약해지자 유카탄은 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러자 중앙집권주의자인 트루헤케는 반란을 선언하고, 세실리오 치와 하신토 파트를 감금하였다. 파트는 당시 500페소를 물고 풀려났고, 치는 반란에 동참하

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사흘 뒤, 치는 200명의 원주민들과 함께 나타났다. 게다가 티스카칼쿠풀(Tixcacalcupul)의 카시케 호세 카스티요가 100명을 이끌고 참여하도록 하였다(Dumond 2005, 122).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바탐의 특수한 상황은 식민지시대부터 전해온다. 1521년 스페인이 유카탄을 점령하고 난 뒤, 원래의 마야의 정치체제는 무너졌다. 마야의 지배체제는 종교-정치 일치 체제였다. 아후아칸(Ahuakán), 할라치 위닉(Halach Winik)은 각각 종교, 행정의 최고 통치자였다. 행정에는 할라치 위닉 아래로 군사 우두머리인 나콤(Nacom), 그 아래에 지방 행정의 우두머리인 바탐이 있다(Reed 1971, 209). 스페인은 유카탄을 정복하자 아후아칸, 할라치 위닉, 나콤 등의 종교와 행정 최고 지배자들의 직위를 없앴다. 대신 스페인 행정기구를 위에 두고 그 아래에 원주민 공화국을 두었다. 그리고 중간의 지위에 있던 바탐을 원주민 공화국의 우두머리로 임명하여 양 조직의 중간자 역할을 맡겼다(Rugeley 1996, 11). 종교체제는 카톨릭으로 대체하였다.

바탐은 농촌 마을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자신의 농장인 란초(rancho)를 가지고 있었고,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원주민 공화국의 각료들을 자신의 란초에서 모이게 했다. 흥미로운 점은 바탐이 재판권 및 역법과 농사를 관장하고 전사를 지휘했다는 점이다. 이는 고대 마야사회에서 왕이 하던 일이었다. 중간자였던 바탐이 마야원주민들에게는 실제로는 최고 지도자, 고대 마야문명의 할라치 위닉의 역할을 했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스페인이 식민체제에서 원주민 공화국을 둔 이유는 행정의 편리, 세금 및 노동의 착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바탐이 스페인을 위해서 한 일은 중간자로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었다.

스페인 사람들은 세금 걷는 것을 직접 하지 않고 중간자를 통해서 하였다. 식민지시대와 1867년의 막시밀리아노가 양위할 때 까지 원주민 자치기구라고 할 수 있는 “원주민 공화국”(república de indígenas)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바탐(Batab)은 이 조직의 우두머리였다. 원주민 공화국에서 바탐은 재판권이 있었으며, 지역에서 씨앗을 심는 것을 조정하였고, 사제들의 달력을 유지하고, 전쟁 때는 마을의 전사를 지휘했다. 바탐은 마을의 우두머리로 아래와 같은 특권을 누렸다. 1) 공물 면제, 2) 개인적 부역 면제, 3) 식민지 직장의 우선적 임명, 4) 말을 타고, 스페인의 의복과 무기를 갖는 것을 허락하고, 5) 법정에서 특별한 위치, 6) 무기달린 겹옷, 7) ‘돈’(don)이라는 명칭을 사용. 그리고 직장은 “세금징수원”으로 정해졌다. 세금징수원으로서 바탐은 4-5%를 수입으로 받았다. 한 교구의 연간 수입이 2,500페소 정도니까 바탐이 받는 것은 125페소 정도 된다. 원주민의 수입으로서는 상당히 큰 것이다. 그리고 바탐의

아내들도 교회세를 면제받았다. 이와 같은 조직(office)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19세기 초 바탐은 그의 공동체에서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의 지위의 어느 정도는 가족에게 승계되었다(Rugeley 1996, 12, 필자번역).

바탐은 중간자로서 식민체제가 인정하는 특권도 누렸지만, 세금을 징수하면서 자신의 수입도 가질 수 있었다. 즉 바탐은 식민지 아래에서도 자신의 왕국을 가지고 그에 걸맞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것이다. 그런데 독립을 하면서 공물면제, 개인적 부역면제, 공직의 우선적 임명이라는 처음 3개 조항의 특권이 사라졌다. 이대로라면 바탐은 점차로 가난해져서 보통 마야원주민들과 비슷하게 될 것이었다. 이것이 바탐이 모든 계급의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인정하고 보편적인 세금을 매기는 헌법<sup>27)</sup>을 제시한 멕시코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어 유카탄의 독립을 원하는 바르바차노의 편에 서게 되는 이유였을 것이다.

카스타 전쟁은 외형상으로 백인들의 정치적 싸움에 끼어든 마야 원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식민지시절의 억압을 표출한 전쟁처럼 보인다. 전쟁의 양상이 불규칙하고 산발적이며 지나치게 처절했기 때문이다. 직접 싸움을 한 마야원주민들이 과격하게 된 이유는 식민지시절부터 쌓인 인종적인 억압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을 이끈 바탐들에게는 싸울 이유와 능력이 있었다. 이런 요소들이 전투를 짧은 시간에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 했다. 세실리오 치와 미겔 볼리오 사이에 맺은 1848년 2월의 협정과 하신토 파트와 바르바차노가 추카캅에서 맺은 같은 해 4월 협정의 내용은 유사한 것으로 원주민이 원했던 대부분이 들어있었다. 협정을 맺은 줄 모르고 찬세노테에서 라디노들이 여자와 아이들을 학살하지 않았더라면, 파트가 마야원주민들의 수장이 된다는 조건이 없었더라면, 전쟁은 1848년에 끝나고, 아마도 아메리카 역사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원주민의 반란으로 남았을지도 모른다.

## 정치-사회적인 반란이 종교적 집결로 정착된 이유:

### 지도자의 부재

그러나 협상이 깨어지자 상황은 전혀 달라졌다. 1848년 8월 17일, 바르바차노는 다시 유카탄이 멕시코의 한 부분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마야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멕시코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제는 분명하

27) 1812년의 헌법(각주 23 참조).

게 연방주의자와 중앙집권주의자의 싸움이 아니었다. 멕시코 중앙정부와 바르바차노의 유카탄정부는 협조하여 마야 바탐이 이끄는 마야사람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추카캅 협정 이후에 치와 파트의 긴밀한 협조는 깨어졌다. 마야사람들은 각각의 마을의 바탐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마을을 싸고 있는 숲에서 싸웠다. 게다가 유카탄정부의 중심지인 메리다 주위에 사는 마야사람들은 오히려 메리다 정부쪽에 협력하여 다른 마야사람들과 싸웠다.<sup>28)</sup> 정부 측이 한 마을을 휩쓸고 가면서 학살을 하면 마야인들 쪽에서 다른 마을을 휩쓸며 학살을 하였다. 마야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일어났지만 작전도 없었고, 전진도 후퇴도 없었다. 라디노들은 숲 속에서 불쑥불쑥 나타나는 마야사람들과 개별적인 전투에서는 밀렸지만, 메리다와 멕시코 정부에서 계속 원군과 화력을 지원받았다. 그 사이에 치와 파트가 살해되었다. 그들의 부관들이었던 베난시오 펠, 플로렌티노 찬 및 호세 바레라가 마야원주민을 이끌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바탐이 갖고 있던 권위는 없었다. 그들은 원주민들이 아니고 메스티소였기 때문에 바탐의 지위를 세습할 수 없었다.<sup>29)</sup>

마야반란군은 그 권위를 “말하는 십자가”에서 찾았다. 말하는 십자가는 기술적으로 조작된 것이다. 어쩌면 세노테에서 십자가가 나타났다는 사실도 조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십자가는 마야 사람들이 성스럽게 생각하는 장소<sup>30)</sup>에서 나타났고, 마야사람들이 할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였다. 마야사람들은 바레라를 따른 것이 아니라, 바레라에게 지시하고 있는 십자가의 권위를 따른 것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때부터 다른 지도자들은 사라지고 말하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마야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하나의 조직을 이룬 것이다. 조직의 가장 높은 위치에는 타티츠(Tatich), 최고 사제가 있다. 그는 사제인 동시에 군대르 지휘하는 우두머리였다(Reed 1971, 209). 이 조직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고대 마야사회와 매우 유사하다. 타티츠는 종교-행정-군사의 우두머리로서 주민들을 이끌었고 ‘십자가의 사람’(Cruzob)<sup>31)</sup>들은 그를 따랐다.

28) 유카탄의 수도인 메리다가 있는 서부는 대부분의 마야사람들은 장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다. 그들은 반도의 동쪽에서 자신의 경작지를 가꾸는 마야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백인의 사회체제에 익숙했다.

29) 바탐의 지위는 세습되었다.

30) 대부분의 세노테에서는 의례의 흔적이 발견된다.

31) 십자가의 사람들은 Cruzob이라고 한다. Cruz는 스페인어로 십자가, ob은 마야어로 복수형이다.

과격한 반란의 결과는 찬 산타 크루스였다. 바탐이 이끈 전쟁은 2년도 지속되지 않은 것에 비해 ‘말하는 십자가’가 이끈 찬 산타 크루스는 50여 년간 지속되었다. 물론 유카탄 반도의 동쪽, 거의 백인들이 살지 않는 고장이라는 이점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멕시코정부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공격한 유카탄 군대가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Carcaga Viliesid 1990, 102-103). 한편, 바탐은 인간이었지만, ‘말하는 십자가’는 신의 말씀이었다. 타티츠는 신의 말을 인간사회에 전하는 자였다. 이 또한 고대 마야사회의 지도자와 매우 유사하다. 타티츠는 종교의 아후아칸과 군사-행정의 할라치 위닉의 역할을 동시에 하였던 것이다. 마침내 원주민은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하였다고 생각했다. 그 때문에 물자부족과 끝없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50여년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 맺는 말

유카탄의 카스타 전쟁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후에 일어난 큰 사건이다. 54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1847-1854) 동안이지만 아주 폭력적인 시기와 십자가의 사람들(Cruzob)이 이끄는 자치적인 시기(1855-1901)의 아주 대조적인 기간 등 여러 점에서 주목을 끈다. 대부분의 경우, 제목이 암시하듯이 카스타, 즉 계급간의 갈등과 그 결과로 나온 폭력성, 또는 십자가의 사람들의 독특한 현상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번 글은 계급간의 갈등의 분석이나, 폭력성의 근원 및 형태, 또는 십자가의 사람들에게 대한 인류학적인 접근보다는 왜 정치적 갈등에서 인종적 갈등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군사 조직의 사회로 끝을 맺게 됐는지 경과와 원인을 찾아보고 그 안에서 사회적 의의를 찾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 전쟁은 라디노로 대표되는 지배계급과 마야원주민 계급과의 전쟁이다. 식민지 시절에 형성된 이 두 사회계급의 갈등이 독립 후 26년이 지난 즈음에 일어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식민지 시절은 이분화 된 사회였다. 스페인계 사람들인 라디노의 세계와 마야 원주민 공화국의 세계이다. 이 둘은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살지만 두 개의 전혀 다른 세계였다. 라디노의 세계에서 볼 때 마야원주민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일과 물자를 조달하는 존재일 뿐이었고,

그들을 인간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Carricr 1999, 70-80).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중간자는 원주민 공화국의 수장, 바탐이었다. 실질적으로는 마야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의지하며 살았다. 즉 중간자가 역할을 잘 하는 동안은 두 세계는 부딪칠 이유가 없었다.<sup>32)</sup> 중간자는 세금을 거두어 라디노에게 바치고, 자신은 그 일부를 가졌다. 또한 파종과 수확 등 절기에 따른 여러 일들을 지도하였다. 그러나 독립이 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나라의 모든 구성원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되었다. 따라서 라디노 세계의 기득권도 위협을 받고, 원주민의 세계에서 특권을 누리던 바탐은 가졌던 것을 잃어야 했다. 한편, 모든 것을 빼앗기기만 했던 마야원주민들은 이제 무엇을 되찾고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궁리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라디노들의 다툼은 연방주의자와 중앙집권 주의자로 갈라지게 했다. 특권을 잃어버린 바탐들은 연방주의자 또는 중앙집권 주의자 라디노에 협력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여기에 멕시코 정부는 미국과 전쟁을 하면서 모자라는 인력을 채우기 위해 유카탄 마야 원주민들에게 총을 나누어주며 무장을 시켰다. 즉, 중앙정부가 원주민들에게 싸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준 셈이다. 그리고 유카탄의 두 라디노 정치 세력은 자신들 부대의 용병으로 원주민들을 불렀다. 마야원주민이 싸움에 참여하는 목적은 실질적 이익, 즉 세금과 부역의 감면이었다. 전쟁에 참여하는 라디노, 바탐, 마야원주민의 입장은 이렇듯 달랐고, 공통적인 문제로 정치성이나 사회성보다는 경제적인 문제가 바탕에 깔려있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1847년 훨씬 이전, 독립이 되면서 시작되어 1838년에 연방주의자 산티아고 이만이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스타 전쟁은 1847년 7월 30일, 세실리오 치가 테피츠의 라디노들을 몰살시키는 데에서 시작된다. 이때부터 라디노측은 마야의 바탐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전쟁의 대상 또는 협상의 대상으로 보았다. 특히 추카갑 협정이 깨어진 이후에는 전쟁의 상대는 온전히 라디노 대 마야사람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때에도 유카탄 서부 지역의 마야 사람들의 일부는 정부측 즉 라디노를 지지하였고, 여전히 라디노의 부대 안에 마야사람들과 메스티소가 있었다. 물론 마야부대 안에도 라디노와 메스티소가 있었다. 전쟁

32) 종교적으로도 원주민조직이 따로 존재하였으나 교구에서 관리하였고, 실제적으로 식민 지시대의 모든 역압은 종교적 제재에서 비롯되었으나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을 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갈라지지 않는 상황은 여전하였던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용병으로 시작한 전쟁이기 때문이며, 또한 전쟁이 시작된 이유가 경제문제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1847년 1월에 있었던 마야돌리드 사건이나 7월에 일어난 치의 테피츠 공격, 그 후에도 전투가 계속적으로 과격하게 되는 데에는 300여 년 동안 인간이 아닌 존재로 살아왔던 마야원주민의 분노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카스타 전쟁의 시작을 정치적 성격의 이만의 반란이나 마야원주민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마야돌리드 사건에서 잡지 않고 아이를 처형한 트루헤케의 억압에 반대하여 일어난 7월의 테피츠 사건으로 본다는 것은 이 전쟁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고민한 사람들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이 사건은 마야원주민 대 라디노의 ‘전쟁’으로 볼 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탐들의 전쟁 참여 및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라디노가 기득권의 유지 및 발전, 그리고 마야사람들은 세금 및 부역 감면의 이익을 바랐다면, 마야의 바탐이 전쟁을 했을 때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1848년에 치와 파트가 이룬 협정 8조 중에서 다섯 조항은 개인적 헌신 및 세금에 관한 것이다. 이는 전쟁이 일어났던 직접적인 이유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제7조에서 “장총을 돌려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평화로운 삶을 보호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마체테로 충분했을 텐데, 그들은 총으로 무장한 집단, 즉 라디노에게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집단을 유지하고 싶어했다. 군사적 집단 유지의 목적은 추카캅협정의 5조 바르바차노가 주지사를 유지할 것과, 6조 파트가 원주민의 수장이 될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파트는 스스로를 메리다정부의 수장인 바르바차노와 동격으로 놓고 있다. 즉 그는 라디노의 나라와 대등하게 존재할 원주민의 나라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세실리오 치도 마찬가지로 였을 것이다. 그들은 바탐으로서 권위를 지니고 있었고, 카스타 전쟁을 전후하여 그 위상을 넓혔다. 그러나 파트와 치, 그 누구도 마야원주민 나라의 최고의 수장이 되기에는 미흡했다. 마야세계의 최고의 지도자는 신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거룩한 파”를 가진 자만이 수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Chávez Gómez 2006, 70-72). 그들은 결국 수장이 되지 못하고 자신들의 사람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그들의 열망은 “말하는 십자가”가 나타나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말하는 십자가”는 바탐이었던 파트의 권위와 위상을 지니지 못하였던 메스티소 호세

바레라가 마야사람들을 이끌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내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십자가의 신성함은 마야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신성한 존재, 최고의 지도자를 대신할 수 있었다. “말하는 십자가”는 그 성스러운 힘으로 원주민 나라를 이끌 수 있었고, 전혀 말을 하지 않는 오늘날에도 마야사람들의 경배를 받고있다.

유카탄에서 카스타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매우 복합적인 당시의 사정 및 조건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이 계속된 바탕에는 마야원주민의 오랫동안 쌓인 분노가 있었다. 그리고 그 분노에는 오랫동안의 억압에 대한 보복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를 찾기 원하는 마야 사람들의 열망을 담은 거룩한 분노도 함께 있었다. 그리고 비록 50여년의 짧은 기간, 그리고 유카탄 동쪽 숲속이라는 제한된 지역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꿈을 이루었다.

카스타전쟁을 계급 또는 인종적인 대결로 해석하는 데에는 쿠르스옉의 나라, 마야원주민의 나라인 찬 산타 크루스의 50년이 있기 때문이다. 찬 산타 크루스의 존재가 멕시코의 역사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식민지시절을 청산하면서 고대 마야사회의 성격을 가진 마야원주민의 나라가 세워졌었고, 그것을 오늘날에도 기억하는 한, 카스타 전쟁과 그 결과로 나타났던 찬 산타 크루스의 사회적 의미는 크다고 본다.

## 참고문헌

- Bartolomé, Miguel Alberto(1986), “La Estratificación étnica en Yucatán como antecedente de la Guerra de Castas,” *Boletín E.C.A.U.D.Y.*, Vol. 13, No. 76, Mérida, pp. 3-13.
- Berzunza Pinto, Ramón(1997), *Guerra Social en Yucatán*, México: Maldonado editores, Gobierno del Estado Secretaria de Educación.
- Bricker, Victoria Reifler(1993), *El Cristo Indígena, El Rey Nativo*,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Careaga Viliesid, Lorena(1990), *Quintana Roo: una historia compartida*, México: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Dr. José Mañá.
- Carriere, Jean-Claude(1999), *Valladolid Non Jaeng(La controverse de Valladolid)*, Se-Wook Yi(trans.), Seoul, Korea: Saem-Geo.
- Chávez Gómez, Jose Manuel A.(2006), “La recreación del antiguo espacio político. Un cuchcabal kejache y el na'al kejache Chan en el siglo XVII,” in Okoshi et al. *Nuevas Perspectivas sobre la geografía política de los mayas*, México: UNAM/Universidad Autónoma de Campeche/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Mesoamerican Studies, INC., pp. 57-80.
- Dumond, Don E.(2005), *El Machete y la Cruz: la sublevación de campesinos de Yucatán*, México: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Filológicas, UNAM.
- Guémez Pineda, Arturo(1997), “La Rebelión de Nohcacab, prefacio inédito de la Guerra de Castas,” *SAASTUN*, Año. 0, No. 2, México: Revista de Cultura Maya, pp. 51-79.
- Pasos, Luis(1993), *Historia sinóptica de México: de los Olmecas a Fox*, México: DIANA editorial.
- Pool Jimenez, Moreno(1997), *Historia oral de la Guerra de Castas 1847: según los viejos descendientes Mayas*, Mérida: Universidad Autónoma de Yucatán.
- Reed, Nelson(2002), *La Guerra de Castas de Yucatán*, México: Ediciones Era, S.A. de C.V..
- Rugeley, Terry(1996), *Yucatan's Maya Peasantry and the Origin's of the Caste War*,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_\_\_\_\_ (1997), “Tihosuco 1800-1847: la sociedad municipal y la génesis de la Guerra de Castas,” *SAASTUN*, Año. 0, No. 1, México: Revista de Cultura Maya, pp. 17-62.
- \_\_\_\_\_ (2001), *Maya Wars: Ethnographic Accounts from Nineteenth-century, Yucatan*,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Sánchez Córdova et al.(2008), *Historia de México I: un enfoque constructiva*, México: PEARSON educación.

Article Received: 2011. 01. 05

Revised: 2011. 02. 01

Accepted: 2011. 02. 10